

KIA '승률 5할 깨기' 나선다

T 타이거즈 전망대

분위기를 살린 KIA 타이거즈가 '승률 5할' 깨기에 나선다.

5연패에 빠졌던 KIA는 지난 주 비로 한 경기를 쉬면서 5경기를 소화했다. 결과는 4승 1패. 올 시즌 전적은 18승 18패가 되면서 5할 승률로 6위에 자리하고 있다.

KIA는 16일 연패 상황에서 만난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7회 7득점을 뽑아내며 8-2로 승부를 뒤집었고, 소크라테스의 두 경기 연속 홈런에 힘입어 17일 7-6, 연승을 이었다.

우천취소로 18일 하루 쉬 KIA는 19일에도 뜨거운 화력을 선보였다. 키움 히어로즈 요키시를 상대로 타자일순하는 공세를 펼치면서 1회에만 8점을 만들었다. 확실한 득점 지원을 받은 이의리의 7이닝 1실점 호투까지 더해져 10-1 승리와 함께 3연승에 성공했다.

대전서 한화 이글스와 대결... 주말엔 홈에서 LG 트윈스 상대 소크라테스 불붙은 방망이에 이의리 자신감 찾아 선발진 안정

20일에도 소크라테스의 한방이 터져 나왔다. KIA는 소크라테스의 역전 투런과 불펜진의 협업까지 더해 3-2 승리로 4연승까지 내달렸다.

KIA는 21일 최원태와 키움 불펜진에 막혀 '3안타'에 그치면서 양현종의 7이닝 1실점 호투에도 5연승에 실패했다. 하지만 고민 많았던 이의리가 올 시즌 최고의 피칭으로 자신감을 찾으면서 선발진의 무게감이 더해졌다. 무엇보다 소크라테스의 상승세가 반갑다.

소크라테스는 지난 주 5경기에서 9개의 안타를 기록했다. 이 중 3개가 아예 담장을 넘겨버린 홈런이었다. 소크라테스는 5경기에서 0.429 타율로 7타점을 만들면서 타선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 기운이 오르면서 소크라테스의 방망이도 뜨거워진 모양새다. 소크라테스도 지난 20일 결승 투런을 장식한 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몸이 풀리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집요했던 상대 공략에 맞춰 적어도 끝났다. KBO리그 두 번째 시즌,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다. 상대 배터리들은 낮게 들어오는 공으로 소크라테스의 방망이를 끌어내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 투수들이 좋은 낮은 볼로 공략하는 게 느껴진다. 최대한 볼을 높게 보려고 한

다. 초반에 낮게 떨어지는 볼을 쫓다 보니까 고전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감을 잡은 소크라테스는 개인 기록, 수치가 아닌 '승리'를 언급하면서 "팀 승리에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연패를 끊고 분위기를 바꾼 KIA는 이번 주 대전으로 가서 한화 이글스를 만나고 주말에는 안방으로 돌아와 LG 트윈스와 상대한다.

첫 대결에서는 KIA가 루징시리즈를 기록했지만 최근 한화 분위기가 좋지 않다. 한화는 갑작스러운 감독 교체로 어수선한 상황에 지난 주 팀 타율도 0.176에 그쳤다.

소크라테스로 화력을 더한 KIA는 23일 앤더슨을 앞세워 마운트 힙 겨루기에 나선다. 초반 싸움이 중요하다.

4월 3승을 수확했던 앤더슨은 5월 두 경기에서 9이닝을 소화하면서 5.00의 평균자책점으로 주춤

다. 10일 SSG전에서는 4회를 채우지 못했고 16일 삼성전에서는 1회부터 4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진땀을 흘렸다.

초반 집중력이 필요한 앤더슨, 타자들도 끈질긴 승부로 상대를 빠르게 분석해야 한다. 23일 한화에서는 세 외국인 선수 산체스가 출격한다. 11일 삼성, 17일 롯데전까지 두 경기만 소화한 '낯선 상대'다. 그만큼 초반 기싸움이 중요하다.

LG와의 대결에서는 벤치에 눈길도 간다. 앞선 잠실 맞대결에서는 KIA가 '뛰는 팀' LG의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3경기를 모두 쓸어 담았다. 김규성의 짜릿한 홈스틸도 LG전에서 기록됐다.

하지만 KIA는 난적 LG를 상대로 극적인 스윕을 연출하고도 연승과 연패를 오가면서 '승률 5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꾸준한 행보로 5할 벽을 깨고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브룩스 켈카(미국)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의 오크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켈카, LIV 선수 첫 PGA 메이저 대회 우승

PGA 챔피언십 세 번째 정상

'메이저 사냥꾼' 브룩스 켈카(33·미국)가 미국 프로골프협회(PGA) 챔피언십에서 세 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자본 후원을 받는 LIV 골프 리그에서 뛰는 선수로는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랐다.

켈카는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의 오크힐 컨트리클럽(파70·7380야드)에서 열린 PGA 챔피언십(총상금 175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4개를 묶어 3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9언더파 271타가 된 켈카는 공동 2위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 스코티 셰플러(미국) 이상 7언더파 273타)를 2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315만 달러(약 41억8000만원)다.

이번 우승으로 켈카는 PGA 투어 통산 9번째 우

승을 수확했다. 지난해 6월 LIV 골프로 이적한 켈카가 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건 2021년 2월 피닉스오픈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특히 켈카는 메이저대회에서만 5승째를 올렸고, 그중 PGA 챔피언십에서 3승(2018·2019·2023년)을 거둬 강한 면모를 재확인했다. 다른 메이저 2승은 2017년과 2018년 US오픈에서 기록했다.

'메이저대회 5승'은 켈카를 포함해 역대 20명만 지닌 대기록이다.

켈카의 이번 우승은 지난해 출범한 LIV 골프 소속 선수로는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는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LIV 골프가 출범한 이후 PGA 투어와 대립각을 드러내는 가운데 앞선 세 차례 메이저대회에서는 우승한 적이 없는데, 켈카가 '메이저 사냥꾼' 면모를 되살리며 최초의 주인공이 됐다.

켈카와 호블란이 14번 홀에서 나란히 버디를 써

내 사실상 2파전으로 좁혀졌고, 16번 홀(파4)에서 켈카가 췌기를 박았다.

호블란이 티샷을 병거에 빠뜨린 뒤 고전하다 네 번째 샷 만에 그린에 공을 울리며 더블보기를 적어냈고, 켈카는 홀 1m 남짓한 곳에 붙이는 완벽한 두 번째 샷으로 버디를 써내 순식간에 4타 차를 만들어 승기를 굳혔다.

호블란은 마지막 18번 홀(파4) 버디로 셰플러와 공동 2위를 만들며 마친 것에 만족해야 했다.

LIV 소속인 브라이언 디셈보(미국)는 캠 데이비스(호주), 커트 기타야마(미국)와 공동 4위(3언더파 277타)에 올랐고, 로리 매컬로이(북아일랜드)는 공동 7위(2언더파 278타)로 마쳤다.

한국 선수 중에 유일하게 컷을 통과한 이경훈은 이날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한 타를 줄이며 공동 29위(5오버파 285타)에 올랐다.

현재 세계 1위인 람은 공동 50위(7오버파 287타)에 그쳤다. /연합뉴스

클럽 프로 블록, PGA 챔피언십 15위에 홀인원까지

22일(한국시간) 남자 골프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자 켈카만큼이나 화제를 몰고 다닌 출전자가 있다.

투어 선수가 아닌 클럽 프로인 마이클 블록(46·미국)이다. 블록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미션비에호의 아로요 트라부코 골프클럽의 헤드 프로다.

PGA 챔피언십은 출전 선수 156명 가운데 20명 몫을 미국 내 클럽 프로에게 배분한다. 이를 통해

출전 자격을 얻은 블록은 연이름 이븐파 70타를 치며 공동 10위로 컷을 통과했다.

블록은 5번째 PGA 챔피언십 출전, 메이저대회 통산으로는 7번째 출전에 처음으로 컷을 통과했다. 3라운드에서도 이븐파를 적어내며 공동 8위로 올라선 블록은 이날 최종 라운드를 슈퍼스타 로리 매컬로이(북아일랜드)와 돌이 치렀다.

그는 151야드 파3인 15번 홀에서 7번 아이언으로 친 티샷이 그대로 홀로 빨려 들어가 홀인원을

작성했다. 그는 최종 합계 1오버파 281타를 기록, 공동 15위로 대회를 마쳤다.

블록은 이번 대회 상금으로만 28만8333달러(약 3억8000만원)를 벌어들였다.

PGA 투어 홈페이지상엔 헤드 프로로 일하는 골프장에서 45분간 개인 지도를 하면서 125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던 그는 이번 대회 3라운드 때 "1시간에 150달러인데,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다"고 바로잡기도 했다. 어쨌든 이번 대회에서 챙긴 상금은 '시금'으로 굳이 따지면 2000시간 안팎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연합뉴스



우승 세리머니도 홀란스럽게 엘링 홀란(맨시티)이 22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챔피언 세리머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있다. '3시즌 연속 우승'을 확정짓는 맨시티는 이날 첼시와 2022-2023 EPL 37라운드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김민재 철벽수비... 루카쿠 퐁퐁 묶었다

나폴리, 인터 밀란에 3-1 승리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우승을 확정짓는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의 소속팀 나폴리가 인터 밀란을 완파했다.

나폴리는 22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의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경기장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세리에A 36라운드 인터 밀란과 홈 경기에서 3-1로 이겼다.

이미 우승을 확정짓는 나폴리(승점 86)는 5위 AC 밀란(승점 64)과 조금이라도 더 격차를 벌려야 하는 길 길 바번 4위 인터 밀란(승점 66)의 발목을 잡았다.

선발로 출전한 김민재는 후반 29분 중앙 제주시와 교체될 때까지 단단한 수비로 인터 밀란의 득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김민재는 날카로운 전방 패스로 나폴리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김민재가 끊어낸 인터 밀란의 패스는 안드레 프랑크 정보 양귀사가 터트린 선제골의 시발점이 됐다.

수비에서는 인터 밀란의 골잡이 로멜루 루카쿠에게 연결되는 공을 가로채기와 몸싸움으로 차단하며 실점을 막았다.

양 팀은 두, 세 차례씩 상대 골문을 위협했지만

득점 없이 전반전을 0-0으로 마무리했다.

나폴리는 전반 41분 인터 밀란의 로베르토 가글리아리니가 두 번째 엘로카드를 받아 퇴장하며 만들어진 수적 우세를 후반전 득점으로 연결했다.

후반 22분 문전에서 골대를 등진 채 패스를 받은 미드필더 양귀사가 몸을 돌리며 오른발 발리슛으로 차 넣은 공이 골대 바로 앞에서 한 번 바운드된 뒤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날 경기 내내 김민재에 퐁퐁 묶었던 인터 밀란 공격수 루카쿠는 김민재가 나가자마자 바로 득점에 성공했다.

루카쿠는 후반 37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페데리코 디마르코가 문전으로 찰려준 패스를 오른발 인사이드킥으로 방향만 살짝 바꾸어 동점골을 터트렸다.

나폴리는 골장 추가 골로 되반으며 분위기를 다잡았다. 나폴리 수비수 조반니 디로렌초는 후반 40분 페널티지역 앞에서 백라이트를 원발 중거리 슛으로 반대쪽 골대 상단 구석을 정확히 노려 리드를 되찾았다.

나폴리는 후반 추가 시간 역승 상황을 놓치지 않은 잔루가 가에타노의 췌기골까지 터치며 3-1 승리를 매조했다. /연합뉴스